

각양각색 18개국 64개 정원서 인간과 자연 어울림의 場

1년 남은 순천정원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가 꼭 1년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람회장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19일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장 내 토사반입을 지난해 100% 완료한데 이어 큰나무를 1만 그루 이상 식재하는 등 연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주 박람회장 55% ▲국제 습지센터 건립사업 60% ▲수목원 및 습지조성공사 55% ▲한국의 전통정원 25% ▲꿈의 다리 설치 30%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30% 등 전체적으로 55% 수준이다.

◇18개국 외국정원 조성=정원박람회는 국제 행사에 걸맞게 세계각국의 다양한 정원이 조성돼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테마정원’의 경우 ▲세계 전통정원 10개소 ▲실내정원 24개소(국내 16·국외 8) ▲실외정원 30개소(국내 20·국외 10) 등 총 64개의 독특한 정원이 들어선다. 외국에 가지 않고도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녹아있는 세계 최고의 정원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영국정원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독일·미국 등 세계 전통정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국 첼시플라워 쇼에서 ‘해우소 가는 길’로 최고상을 받은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의 정원작품도 ‘포시즌 가든’에 조성된다.

◇국내최초 지붕건축 개념 도입=오는 11월 완공예정인 국제 습지센터는 연면적 9954㎡(지하 1·지상 2층) 규모로 옥상에 잔디를 깔아 정원을 조성, 국내 최초로 지붕건축 개념을 도입했다.

국내의 어린이들의 그림작품 16만점과 세계적 설치미



<조감도>

전체 공정률 55%로 순조 스페인 등 외국정원 조성 한창 강익중 작가 ‘꿈의 다리’ 기대 22개 단체·기업 후원 줄이어

슬가 강익중 작가의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는 ‘꿈의 다리’도 놓치면 안될 볼거리이다. 습지센터와 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재미있고, 기능적인 다리로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포스코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는 무인 궤도택시(PRT)는 지난해 6월 착공해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으로 국제 습지센터에서 순천 문화관(구간 4.3km)까지 주요 이동수단이 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정원가 찰스젠스(영국)가 디자인한 호수 공원인 ‘순천호수’는 순천시 원도심과 신도심, 동천, 언덕 등을 표현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 후원 줄이어=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나무 헌수와 기부 등 시민과 단체들의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조직위는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개인과 단체·기업 등이 기부한 현금·현물·재능(기술) 등을 시민정원과 상징 조형물·가로수길 조성과 벤치·과고라 등 다양한 편의 시설물 설치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2개 단체·기업 등에서 현금 4억2900여만원과 수십억원 상당의 나무와 조경소재 100여점이 기부됐다.

조직위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시민들의 지혜와 참여로 이끌어 내기 위해 한평정원 경연대회와 시민 창조정원 조성 등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 사업비를 80% 이상 확보해 박람회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반 산업박람회는 행사 종료후 대부분의 전시시설을 철거해야 하지만 정원 박람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가치를 더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어 가는 미래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과 도심사이 오전동 153만㎡에서 ‘지구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

정원박람회 송영수 조직위원장

“녹색도시 모델 만드는게 목표

순천 많이 찾도록 홍보해 주세요”



“앞으로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순천시민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원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열어 순천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녹색성장 도시 모델로 제시하겠습니다.”

송영수(64)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은 “남은 1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 정원박람회 조성 현장을 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잔디와 화훼식재를 시작해 이달까지 큰나무 식재를 완료할 계획으로 머지않아 정원박람회장 내에 예쁜 정원이 하나 둘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세계 각국의 전통정원과 테마정원 등의 정원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현재 박람회장에는 영국정원을 비롯해 이

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미국정원 등 세계 전통정원이 한창 조성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원박람회의 랜드마크가 될 ‘꿈의 다리’ 건설을 비롯해 정원박람회의 교통수단인 PRT(무인 궤도차) 사업을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국내의 관람객을 맞이 위한 시민의 역할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일, 국내외적으로 정원박람회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정원박람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미래지향적 산업으로서 새로운 시장개척과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전국 상공회의소 부의장과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무인 궤도택시(PRT)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핸디캡, 코스의 난이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골프가 더욱 즐겁다

NH골프클럽동호회